

제7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안녕! 뭘이 누나! 나는 인천서구 원정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민서야. 내소개를 잠깐 하자면 운동하는 걸 즐기고

좀 까칠한 면이 있지만 친구들과 뛰어노는걸 이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됐어.

누나 때처럼 전쟁이 났냐고? 아냐. 요즘 자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친구와 만났어도 함께 할수도 없지.

처음에는 학교도 학원도 안가서 좀 좋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 상황이
짜증나고 힘들어. 그런데 누나의 이야기를 보고 나니 나의
힘든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저 놀지 못해 갑갑한치니까...
뭘이 누나랑 아바랑 헤어져 있는것도 힘들어!

새아빠지 때문에 다라까지 못쓰게 되는 내몸을 보면서
화가 정말 많이 났어. 나라면 새아빠지를 원망하고
정말 미워했겠지 같거든.

복수 하고 싶기도 했을 텐데
그런데도 영특이를 미워하지 않고
잘 돌보는 걸 보고 솔직히 처음에는



누나가 너무 답답 했지만 와서 보니 남을 원망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누나가 진짜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영국이 뿐만 아니라 누나가 진짜 아버지와 반남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누나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사실 나는 눈자를 돌보 적이 별로 없거든.

나한테는 막 두쌍이 된 사촌 동생이 있는데 만나질만
데리고 있어도 힘들고 놀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

누나도 그랬을텐데 이참에 이겨번게 대안해.

누나! 누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코로나
힘든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깨끗하게 코로나를 버티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누나같이 따뜻하고 굳센 어른이 꼭
될거야.

누나! 어릴 적처럼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

— 인천에서 민서가 —

